

K-브랜드의 경쟁력 높인다... 지식재산처, 상표 다출원 기업과 정책 간담회 실시

- LG생활건강, CJ제일제당 등 7개 상표 다출원 기업 및 현장 전문가와의 만남 -
- 창업, 해외 진출을 위한 신속한 상표권 확보·보호 등 현안 논의·토론 -

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는 5. 28.(목)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(서울 강남구)에서 상표 다출원 기업 및 현장 전문가들과 「'26년 상표 다출원 기업 정책 간담회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, CJ제일제당, LG생활건강, 네이버, 무신사, 놀유니버스, 파미너티 7개 상표 다출원 기업 및 상표 담당자가 참석하여 제도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.

참석 기업들은 전자, 디지털·클라우드, 뷰티, 패션, 문화, 식음료, 바이오 등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상표 제도와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다. 7개 다출원 기업이 출원한 상표는 누적 4.9만개이며, 그 중 현재 유효하게 등록중인 상표권만도 약 2.6만개에 달한다.

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▲상표 출원·심사 현황 ▲부분거절제도 ▲공존동의 ▲초고속우선심사 등 최근 상표 관련한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, ▲주지·저명 판단 기준 정립 ▲등록포기 축소 등 향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.

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“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,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로 높은 상황”이라며, “우리 산업·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, 신속·편리한 상표 심사 제공은 물론 지식재산에 대한 총괄 주무 부처로서 모든 지식재산의 창출·활용·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: 간담회 개요

담당부서	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	책임자	과 장	엄태민 (042-481-5265)
		담당자	주무관	이세한 (042-481-5342)

□ **간담회 개요**

- **(목적)** 상표 출원 및 심사, 등록 등 제도 전반에 관하여 고객(다출원 기업/변리사 등)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
- **(일시)** '26. 5. 28.(목), 14:00~15:40
- **(장소)**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, IP Campus+ 장영실홀
* 역삼역 한국지식재산센터 지하 1층
- **(주 참석자)** 지식재산처 차장 정연우,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남영택 등 6명
상표 다출원 기업 임직원 및 특허법인 변리사 등 9명*
* [기업(7)] 삼성전자, CJ제일제당, LG생활건강, 네이버, 무신사, 놀유니버스, 파미니티, [특허법인(2)] 로울, 리앤목

□ **간담회 세부 일정**

시간	소요	주요내용	비고
14:00~14:05	5'	개회 및 참석자 소개	사회자 (김기호)
14:05~14:15	10'	기념사진 촬영	참석자
14:15~14:18	3'	인사말씀	차장
14:18~14:35	17'	[지식재산처 발표] "26년 상표 분야 주요 현안과 지식재산처의 정책 방향"	발표자 (김기호)
14:35~15:40	65'	[간담회] 상표 출원-심사-등록 등 전체 절차 및 제도 운영 애로·건의사항 청취, 해결방안 논의	참석자

* 'CEO 및 연구자를 위한 특허 출원가이드' 20여부 현장 배포 예정